초호황 끝났지만… 정유업계, 사업 다각화로 반등 노린다

난방 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정제마진 상승 조짐 등 호재 다수
석화제품 생산 등 포트폴리오 확대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전경. /현대오일뱅크

정유사들의 초호황 실적 잔치가 끝나가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석유제품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을 맞아 초호황을 맞이했던 상반기와 비교해 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제마진 상승 분위기와 사업 다각화로 4분기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3분기 정유사들의 실적은 모두 떨어졌다.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 이익은 7040억원으로, 2분기 영업이익 2조3292억원에 비해 영업 이익은 69.78% 급감했다.

GS칼텍스는 매출 16조4388억원, 영업 이익 8177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 이익은 61.6% 크게 떨어졌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5117억원, 70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분기 대비 에쓰오일은 70.3%, 현대오일뱅크는 48.8%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해 12조가량의 흑자를 거둔 상반기와 비교해 주춤하는 모습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 이익이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특이한 배경 속에서 커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공장 가동률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 달 8일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들의 지난 9월 평균 공장 가동률은 80.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78.7%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다만 4분기에도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배럴당 '0'달러까지 내려갔던 정제마진이 이달 첫째 주 배럴당 4.6달러를 기록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는 지난 9월 셋째 주 배럴당 0달러까지 내려갔었다. 석유·화학 업계는 통상 정제마진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정제마진이 '0'이라는 말은 석유제품을 판매해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증권은 "4분기 이후 난방용 경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10월 기준 정제마진은 배럴당 15.2달러를 기록했다"며 "전분기와 비교해 35.6% 증가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유업계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난방유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로 꼽았다. 여기에 오펙플러스의 감산 등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악화하며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4분기 호재 요인이 있음에도 증권업계에서는 "정제마진과 재고평가 이익 감소 등으로 내년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5.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이에 정유사들은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GS칼텍스는 창사 이래 최대 투자 규모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통해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계획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 HPC(중질유 기반 석유화학설비) 공장을 준공해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HPC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친환경 화학 소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도 나선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항공업계, 中·日 등 국제선 정상화 속도

대한항공, 상하이 등 中 노선 재개
아시아나, 31개월만에 항저우 운항
제주항공·티웨이도 재운항 박차

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주요 여객 노선의 운항을 본격 재개하면서 국제선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노선은 항공사에 큰 매출을 차지하던 곳인 만큼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중국의 방역이 완벽하게 완화되지 않은 만큼 당장 수요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중 노선 운항 확대에 따라 주요 중국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먼저 상하이 노선은 11월 20일부터 운항하며 난징 노선은 12월7일부터 재개한다. 또 칭다오 노선도 12월11일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일본 노선도 확대한다. 인천~삿포로 노선과 인천~오키나와 노선은 12월 1일부터 운항한다. 인천~텔아비브 노선도 12월 26일부터 주 3회(월·수·금)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증편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27일부터 인천~창춘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증편했으며 지난 2일에는 항저우 노선을 오는 29일부터는 선전 노선을 재개한다. 항저우, 선전 노선은 2020년3월 이후 2년7개월만에 재운항하는 것이다. 또 오는 17일 인천~상하이, 26일 인천~선전 운항을 재개한다.

제주항공은 하얼빈 노선을 오는 18일부터 주 1회 일정으로 재운항하고 옌진 노선도 2년9개월 만에 재개했다.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부터 심양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를 검토해 중단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공급석을 확대하겠다"며 "안전 운항 체계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들의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가 개최한 '2022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에 참가한 스타트업 아폴로 파워의 '차량 외부에 다양한 면적으로 적용 가능한 태양광 필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현대차·기아, 스타트업들과 혁신기술 전시

'2022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업해 발굴한 고객 관점의 상품화 유망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7~11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들과의 신기술 실증 시연을 위한 '2022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 경험을 신속하게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2019년 시작한 개방형 혁신 상품개발 플랫폼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상품·신기술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외부 스타트업과 기술도 협력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함께 미래를 만들다(Building Futur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과 진행한 협업 결과물 13점과 현대차·기아가 상상하는 150건의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전시했다. 양사는 약 2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상품 고객 만족▲기술 구현 가능성▲기술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최종 한국 2팀, 북미 7팀, 유럽 3팀, 이스라엘 1팀 등 총 13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도록 비용과 차량 등을 지원했고 각 스타트업은 현지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차량이나 목업으로 제작해 행사에 참가했다. 스타트업들이 구현한 기술은 ▲PoC(Proof of Concept)존 ▲파트너스(Partners)존▲선행개발(Advanced Development)존 등 세 가지 구역에 전시됐다.

지난해에 이어 현대차·기아는 올해 전시된 기술 중 고객 관점에서 선호도 및 필요도를 높이 평가받은 기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차량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Hyundai CRADLE, 북미·유럽·중국·이스라엘·싱가포르) 및 제로원(ZER01NE, 국내)과 함께 1000여 개의 혁신적인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기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갤 버즈2 프로, 애플 안방 美서 에어팟 이겨

CNN, 착용감·음질 등 기능서
에어팟 프로2보다 능가 평가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사진)'가 경쟁 제품인 애플 '에어팟 프로2'에 비해 핵심 기능에서 뛰어나다는 평가가 미국 유력 매체로부터 나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 울트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 발명품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일(현지시각) CNN의 소비자 전문 매체 'CNN 언더스코어드'는 제품 비교 기사에서 "갤럭시 버즈2 프로가 에어팟 프로2보다 착용감이 더 편안하고, 고해상도 오디오와 넓은 음역을 제공한다"며 "전반적인 핵심 기능에서 앞선다"고 평가했다.

해당 매체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정체성이 확실한 상징적인 외관이 특징이지만, 에어팟이 IPX4 등급의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갤럭시 버즈2 프로는 IPX7 등급의 성능을 갖춰 운동 시 방수가 더 잘되고, 무광택 마감 처리를 해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더 적합하다"고 평했다. 'IPX7 등급'은 최대 1m 수심에서 최대 30분간 노출을 견디는 방수 성능이다.

음질 면에서는 두 제품 모두 뛰어나지만, 승자는 24비트의 고해상도(hi-fi)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이 있는 갤럭시 버즈2 프로라고 평했다.

매체는 "전반적인 사운드에서 갤럭시 버즈2가 더 넓은 음역을 포괄한다고 느껴진다"며 "입체 음향 경험을 중시한다면 에어팟을 선택하는 게 적합하겠으나, 전반적인 음질을 따진다면 누구나 갤럭시 버즈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갤럭시 버즈2 프로가 귀에 더 가볍게 잘 맞고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매체는 "두 제품 모두 가격 대비 최고의 이어폰이며 에어팟 프로 2세대도 훌륭하지만, 전반적인 승자로는 좀 더 편안한 디자인과 폭넓은 음역, 하이파이 오디오 지원 등을 갖춘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